

예술가의 상상력으로 극복한 반측실인증

의학

이탈리아 영화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Federico Fellini)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 의학자들은 그의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뇌졸중 이후에 일어나는 뇌 기능 변화에 대해 자세히 관찰했다.

"왼쪽 부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감쪽이면서 희가로도 유명한 펠리니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고 놀라서 말했다. 그의 그림에는 항상 왼쪽의 일부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뇌의 우반구에 뇌졸중 발작이 발생하니 4주일이 지난 후 일어난 일이었다. 그의 뇌졸중은 뇌경색(腦梗塞)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탈리아에 있는 아젠다 모스페달리에리 소속의 키타잘라로와 아버딘대학의 델라 사라 등의 의학자들은 전문 용어로 펠리니의 뇌졸중 증상을 '반측실인증(半側失認症)'이라고 불렀다.

반측실인증이란 자기 신체의 일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뇌졸중 환자들의 왼쪽 혹은 오른쪽 편 의 지각 능력 감퇴로 일어난다. 한쪽의 수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음식을 먹을 때도 특정 부위의 음식을 남긴다든지, 또는 책을 읽으면서도 한쪽 페이지를 그냥 넘기는 등의 증세도 같은 맥락이다. 빌레펠트대학의 뇌신경 연구자

한스 마어코비치는 뇌의 우반구가 지각 기능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반측실인증 역시 뇌의 우반구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난다. 우반구 뇌가 좌측뿐만 아니라 우측의 지각까지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뇌에 손상을 입지 않은 건강한 환자들에게서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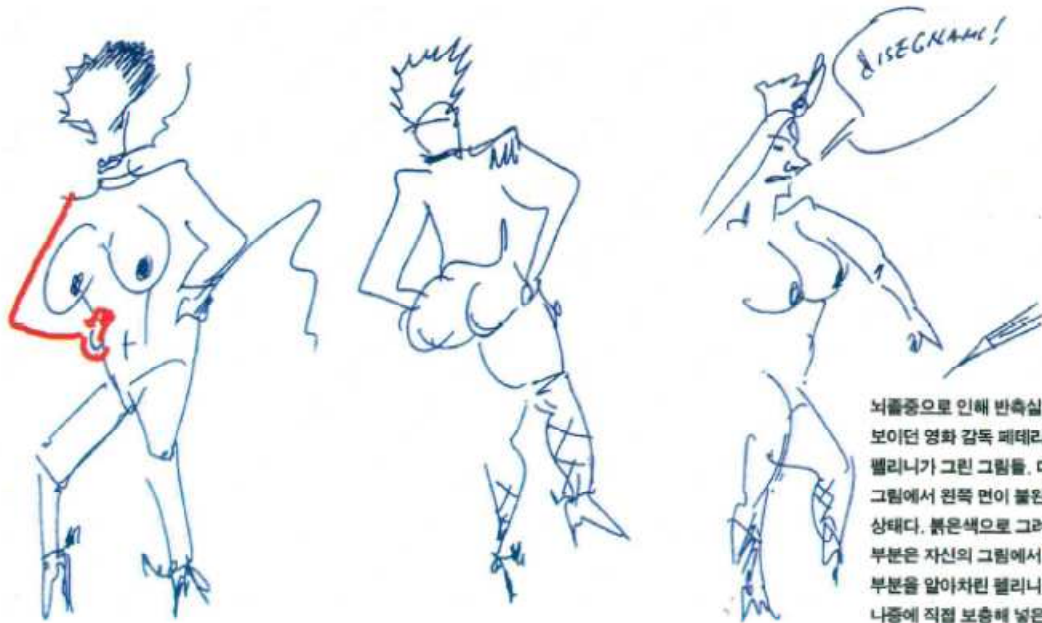
이제까지 밝혀진 반측실인증의 증세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을 인식하지 못했다. 즉 자신이 왼손을 쓰지 못한다던가, 오른쪽을 잘 쳐다보지 않는다던가 하는 것을 환자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한다. 실명 치료를 통해 이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측실인증이 약화되는 것일 뿐, 환자는 여전히 자신의 지각 능력을 온전하다고 믿는다.

그런데 펠리니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손상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스케치한 그림을 보고 한쪽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지적했다. 그리고 어느 환자와 다르게 빠른 속도로 회복을 보여 뇌졸중 발생 후 두 달이 지나서 완전히 이 증세를 극복했다.

이러한 보기 드문 현상에 대해 많은 연구와 관찰이 이루어졌다. 펠리니 역시 손상된 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신체 일부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보였던 것이다.

학자들은 예술가의 상상력이 공간 지각의 결손 부분을 보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좌우 구분없이 공간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예술가적 상상력이 반측실인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다.



뇌졸중으로 인해 반측실인증을 보이던 영화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가 그린 그림들. 대부분의 그림에서 왼쪽 면이 불완전한 상태다. 붉은색으로 그려진 부분은 자신의 그림에서 부족한 부분을 알아차린 펠리니가 나중에 직접 보충해 넣은 것이다.